

고려청자박물관
학술총서 18

모란 牡丹

천 년의
향기를 담은
청자

—
PEONY

CELADON,
ABOUT A SCENT OF
A THOUSAND YEARS

출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Lenders to the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KOREA

Gwangju National Museum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일러두기

- 1 이 책은 고려청자박물관이 201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 특별전 “모란牡丹-천 년의 향기를 담은 청자”의 전시도록입니다.
- 2 전시유물을 주로 수록하였으며, 전시되지 않은 중요한 관련 유물들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 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 4 유물의 크기 단위는 cm로 높이를 기준으로 했으며, 일부 유물은 그 특징에 따라 지름 또는 길이를 함께 병기하였습니다.

Note to the Reader

- 1 This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the special exhibition "Peony - Celadon, about a Scent of a thousand years" on display in the Special Exhibition Gallery of the Goryeo Celadon Museum, Gangjin, from August 1 to September 30, 2015.
- 2 The catalogue describes objects displayed in the exhibition, along with some important related object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exhibition.
- 3 Photo of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are provid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4 The size unit of an object is centimeters and based on its height. Depending on their rypes, a diameter or length is additionally indicated.

목차 CONTENTS

특별전을 열며 EXHIBITION OPENING	4
축하의 글 CONGRATULATIONS	6
—	
도판 PLATES	8
—	
도판목록 LIST OF PLATES	78

특별전을 열며

제43회 강진청자축제와 박물관 개관 18주년을 기념하여 ‘모란^{牡丹}-천 년의 향기를 담은 청자’라는 특별전을 마련하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와 풍요로움을 상징을 하는 꽃으로, 고려청자는 물론 여러 종류의 공예품에 다양한 모양과 표현기법으로 장식되어 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모란을 주요 문양으로 한 대표적인 청자 유물을 여러 기관에서 대여하여 전시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이 모란꽃을 보고 느꼈을 감동과 염원을 고스란히 경험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강진군은 고려청자 전문 박물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그 첫 걸음으로 강진청자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려청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특별전이 고려청자를 연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전에 유물을 대여해 주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전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청자박물관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7월

강진군수 강진원

EXHIBITION OPENING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a special goryeo celadon exhibition of “Peony - Celadon, about a Scent of a thousand years” that Gangjin-gun will hold to celebrate the 43th Gangjin Celadon Festival and the 18th anniversary of the Goryeo Celadon Museum.

The peony has been described as a symbol of affluence and wealth and widely embedded into artifacts although patterns and technique varied among artists. Gangjin-gun will showcase technically significant goryeo celadon featuring peony patterns to make the upcoming exhibition unique after leasing them from several organizations. While looking at the patterns of peony engraved over Goryeo celadon, you may experience the joy and hope that our ancestors had with peony.

Gangjin-gun has recently renamed its celadon museum the Goryeo Celadon Museum as part of the effort to boost the role of the museum in Goryeo celadon promotion. We will make our efforts to bolster research activities and public interest in Goryeo celadon. We are hopeful that the upcoming exhibition will serve a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visitors to find out more about our excellent heritage.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tend our gratitude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Gwangju National Museum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to this special exhibition. I also thank the employees of the museum who have been working hard to prepare for the exhibition.

July, 2015

Mayor of Gangjin-gun Gang Jin-won

축하의 글

올해로 개관 18주년을 맞는 고려청자박물관은 500년 고려청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청자 전문 박물관입니다. 천 년 전부터 강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청자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교한 공예기술과 우수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진은 고려청자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풍부한 유적과 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시대 청자요지가 있는 야산과 경작지 등 자연환경 자체가 바로 대규모의 문화유적인 곳입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고려청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특별전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려청자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이 우리나라 고려청자 연구의 메카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번 특별전 개최에 힘써 주신 박물관 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7월

강진군의회 의장 김 상 윤

CONGRATULATIONS

The Goryeo Celadon Museum will celebrate its 18th anniversary this year after it has served as a venue dedicated to goryeo celadon and their long history. The history of celadon dates back 1,000 years in Gangjin. Celadon made in Gangjin is characterized by exquisite techniques and excellent esthetic senses.

Gangjin is rich in cultural heritages: Along with Goryeo celadon, kiln sites used to be scattered across large areas of mountains and fields in the Goryeo Dynasty.

The upcoming special exhibition is intended to promote further studies on Goryeo celadon and public interest in national cultural heritage.

I expect that the Goryeo Celadon Museum will play a central role in carrying out research activities. I also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is exhibition.

July, 2015
Chairman of Gangjin-gun Council Kim Sang-youn



저기 있는 저 모란 누가 심었나
흰 것은 풍산이요 붉은 것은 대송일세
곱고 갈끔한 옥안엔 미소까지 띠었는데
바람을 무서워하긴 조 황후를 닮았구려
천연의 고운 자태 연지도 분도 아니 발라
눈썹 그리려 장 경윤 기다리나

聞有名花誰所種
白則豐山紫大宋
玉顏倩瘦微含笑
正似畏風皇后趙
天然姿色不脂粉
畫眉肯待張京尹

동풍이 불어올 제 너의 적수 구할 양이면
울긋불긋 천 가지 꽃이 어찌 시샘하지 않으랴만
도리어 송죽과 세 벗을 만들고
꽃철엔 양류에 뒤진 거나 부끄러워할는지
겨울 매화 가을 국화도 견주어 보기 어렵거든
요란한 복사꽃 오얏꽃이야 따질 것 없으리

若到東風求爾敵
豈欠千花競紅白
反將松竹成三友
羞向芳時殿楊柳
臘梅秋菊猶難比
安數紛紛桃與李

그 옛날 침향정沈香亭에서 이 꽃을 사랑하여
밤놀이 즐기느라 조야거 탕더라네
청평사淸平詞 선뜻 바치니 장하다 이태백이여

憶昔沈香愛此花
遊賞多乘炤夜車
立進淸平白也豪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第18卷 古律詩
晉陽侯集其日上番門客之姓爲韻命門下詩人輩賦冬日牡丹予亦和進一首傍韻自押

001 청자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화형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唐草文 花形 楩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3.5 입지름 17.3 굽지름 6.4
 호림박물관 고263

모란꽃넝쿨무늬가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는 청자 접시이다. 안쪽 바닥면은 넓고 편평하며, 몸통은 사선으로 뻗어 올라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입술로 이어진다. 입술의 가장자리를 여섯 개의 꽃잎 처럼 살짝 도려내어 꽃모양으로 마무리하였다.

접시의 넓고 편평한 안쪽 바닥면에는 압출양각기법으로 세 송이의 모란꽃넝쿨무늬가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 가장자리로 원각圓刻이 있다. 안쪽 옆면에는 입술을 도려낸 것에 맞추어 여섯 개로 문양대를 구분하여 각각의 문양대 안에 두 송이의 모란꽃과 잎사귀를 나타내었고, 옆면의 아랫부분에는 새끼줄을 꼬아놓은 듯한 장식이 둘러져 있다. 모든 모란은 꽃잎과 잎사귀 안에 가는 세선細線을 넣어 아주 정교하게 마무리하였다. 바깥쪽 면에는 무늬는 없으나 입술을 도려낸 것에 맞추어 세로로 누른 흔적이 있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녹색綠靑色의 유약을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웠으며, 무늬의 외곽으로 유약이 많이 있어 입체감을 더한다. 굽은 낮은 다리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며, 굽 접지면接地面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02 청자 기와
 靑瓷 瓦
 Celadon roof tiles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길이 40.8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출토

청자로 제작된 암막새와 수막새 세트이다. 암막새는 몸통이 완만한 곡면으로 제작되어 앞쪽에는
 넝쿨무늬가 양각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수막새는 몸통이 곡면을 이루며 앞쪽에는 모란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외곽으로 구슬무늬가 둘러져 있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
 하였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을 바깥쪽 면에만 씌웠다. 안쪽 면에는 포흔布痕이 남아 있다.

이러한 청자 기와는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18권 의종 11년1157의 기록(…… 其北構養怡亭蓋以
 靑瓷 南構養和亭蓋以椽 ……)에서 확인되며, 1964년과 1965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어 기록자료와 실물자료가 존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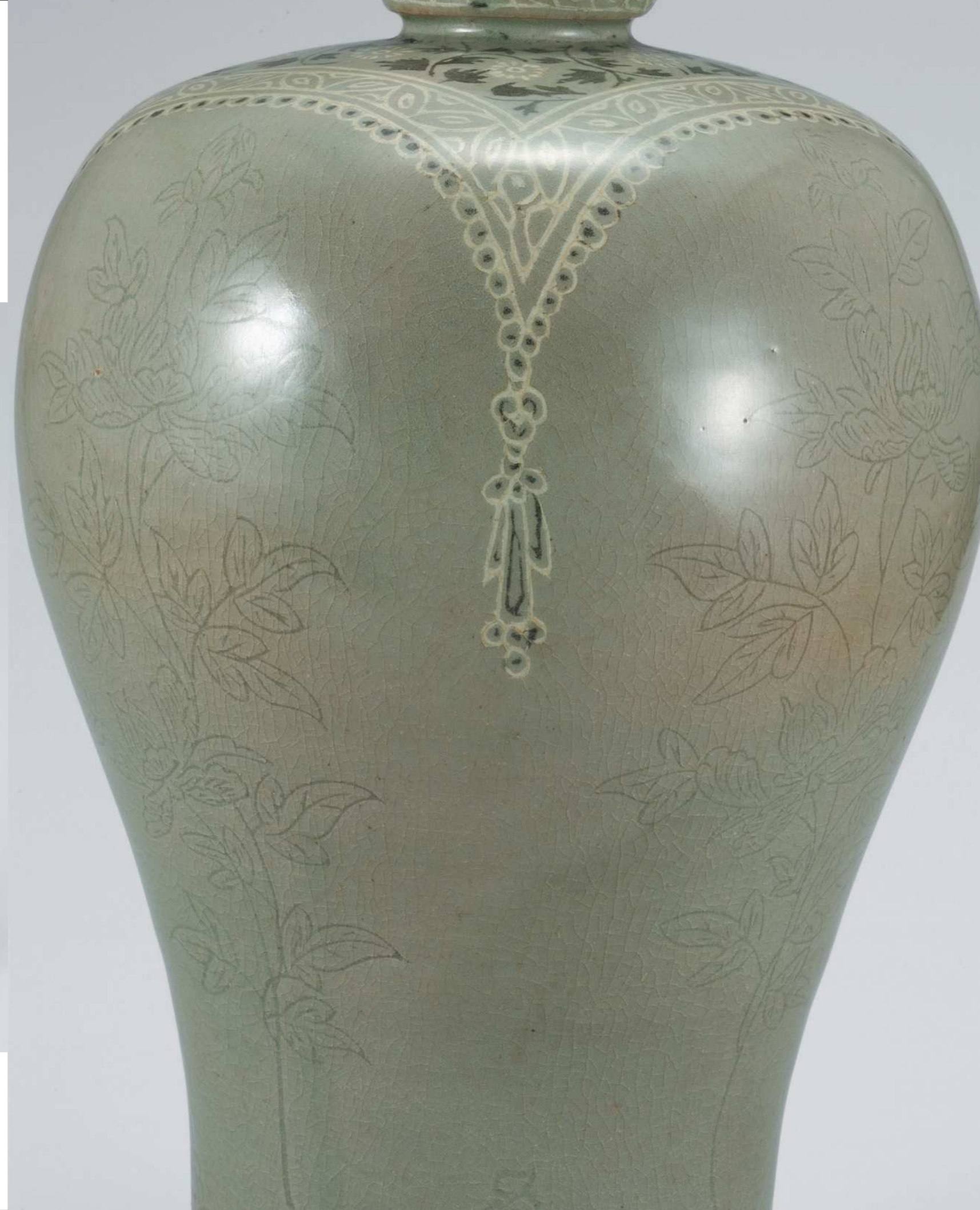
003 청자 음각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陰刻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cis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13세기
 높이 35.4 입지름 7.0 바닥지름 15.2
 국립중앙박물관 본관1981
 보물 제342호

몸통이 부드러운 'S'자 형태로 만들어진 청자 매병으로 고려 중기의 전형적인 매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바깥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살짝 줄어들어 올라가는 몸통은 풍만한 어깨로 이어지며, 수직으로 꺾이는 입술로 연결된다.

매병의 몸통 중앙에는 음각선으로 모란꽃가지무늬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가는 선으로 꽃잎과 잎사귀의 윤곽을 표현하여 세밀함을 더했다. 저부에는 번개무늬 띠를 둘렀으며, 그 위에는 영지버섯 모양과 비슷한 구름의 윤곽선을 조각칼을 뉘어 깎아내어 문양장식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매병의 어깨에는 정사각형의 보자기무늬를 흑백상감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입술의 주변에는 국화넝쿨무늬를 배치하고 그 외곽으로 넝쿨무늬와 구슬무늬 띠를 둘렀다. 보자기의 네 귀에는 술 모양의 장식을 더해 마치 비단으로 만든 보자기가 매병의 어깨를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청회색靑灰色의 유약이 전면에 씌워져 있으며, 바깥쪽 면의 일부는 유약이 묻쳐 있는 부분도 있다. 굽은 바깥면을 깎아 내지 않고 폭이 일정한 접지면接地面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다.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004 청자 상감 모란당초문 표형 주자
 靑瓷 象嵌 牡丹唐草文 瓢形 注子
 Celadon gourd-shaped pitcher with inlai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13세기
 높이 34.3 입지름 2.0 굽지름 9.7
 국립중앙박물관 본관10075
 국보 제116호

표주박모양의 몸통이 유려한 자태로 만들어진 청자 주자이다. 표주박 모양의 몸통은 위·아래 모두 중심이 가운데 있어 완벽한 비례미를 보여주며, 곧게 선 입술로 이어진다. 몸통에는 완만한 'S'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물이 나오는 주구注口가 부착되어 있으며, 반대쪽에는 띠 모양으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손잡이의 위쪽에는 뚜껑과 연결할 수 있는 작은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뚜껑은 곧게 뺀 입술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T'자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주자의 아래 몸통에는 역상감逆象嵌기법으로 모란꽃넙쿨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가는 음각선으로 꽃잎과 잎사귀의 윤곽을 묘사하여 정교함을 더했다. 위·아래의 몸통 사이 잘록한 부분에는 굽은 선을 넣어 대나무처럼 표현한 다음 가는 음각선으로 대나무의 마디를 표현하였다. 주자의 윗 몸통에는 아래, 위로 두 줄의 선상감線象嵌으로 문양대를 구분한 다음, 구름 속을 날아오르는 학을 흑백상감黑白象嵌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주자의 입술 바깥쪽 면에는 흑백상감기법으로 간략화된 연관문이 표현되어 있다. 주구 및 손잡이의 아래쪽 부분과 몸통과 접합되는 부분에는 백화白畫기법을 이용하여 일렬로 점을 찍어 장식하였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이 전면에 썩어져 있으며, 잘록하게 줄어드는 몸통과 손잡이, 주구의 일부에 유약이 묻쳐 있다. 뚜껑과 입술의 일부에는 산화번조酸化燻造되어 녹황색綠黃色을 띠는 부분도 있다. 굽은 곧게 서 있는 형태로 굽 안바닥을 알개 깎아 내었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5개의 내화토耐火土모래빚음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18 모란牡丹
 천 년의 향기를 담은 청자





005 청자 상감 모란문 호
 靑瓷 象嵌 牡丹文 壺
 Celadon Jar with inlai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13세기
 높이 19.7 입지름 20.6
 국립중앙박물관 덕수6238
 국보 제98호

고려시대에는 청자와 더불어 각종 동기銅器가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청자의 기종器種과 기형器形 가운데 같은 시대에 사용된 동기를 그대로 청자로 옮겨 만든 것이 많다. 이 청자 항아리도 그런 예 가운데 하나이며, 양쪽에 달린 동물 모양 손잡이는 동기의 디자인에서 유래한 것이다. 높이가 20.1cm로 고려청자 중 드물게 큰 그릇인데,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방구리라고 불리는 질그릇과 크거나 형상이 매우 비슷하며 음료飲料를 담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몸체 양면에 모란꽃을 상감하였는데 크고 시원스러운 그릇 모양과 문양이 잘 어울린다. 백상감된 모란꽃의 꽃술과 꽃잎 둘레를 매우 가는 흑선으로 처리하였고 음각선으로 세밀하게 꽃잎 맥을 표현하였다. 꽃 부분의 백토 상감은 매우 두터워서 일부 부풀어 오른 곳도 있다. 맑은 녹색이 감도는 회청색 유약이 전면에 얇고 고르게 입혀져 있으며, 유약의 투명도가 높고 광택이 청아하다.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006 청자 상감동화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象嵌銅畫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laid
 and underglaze copper-painted peony branch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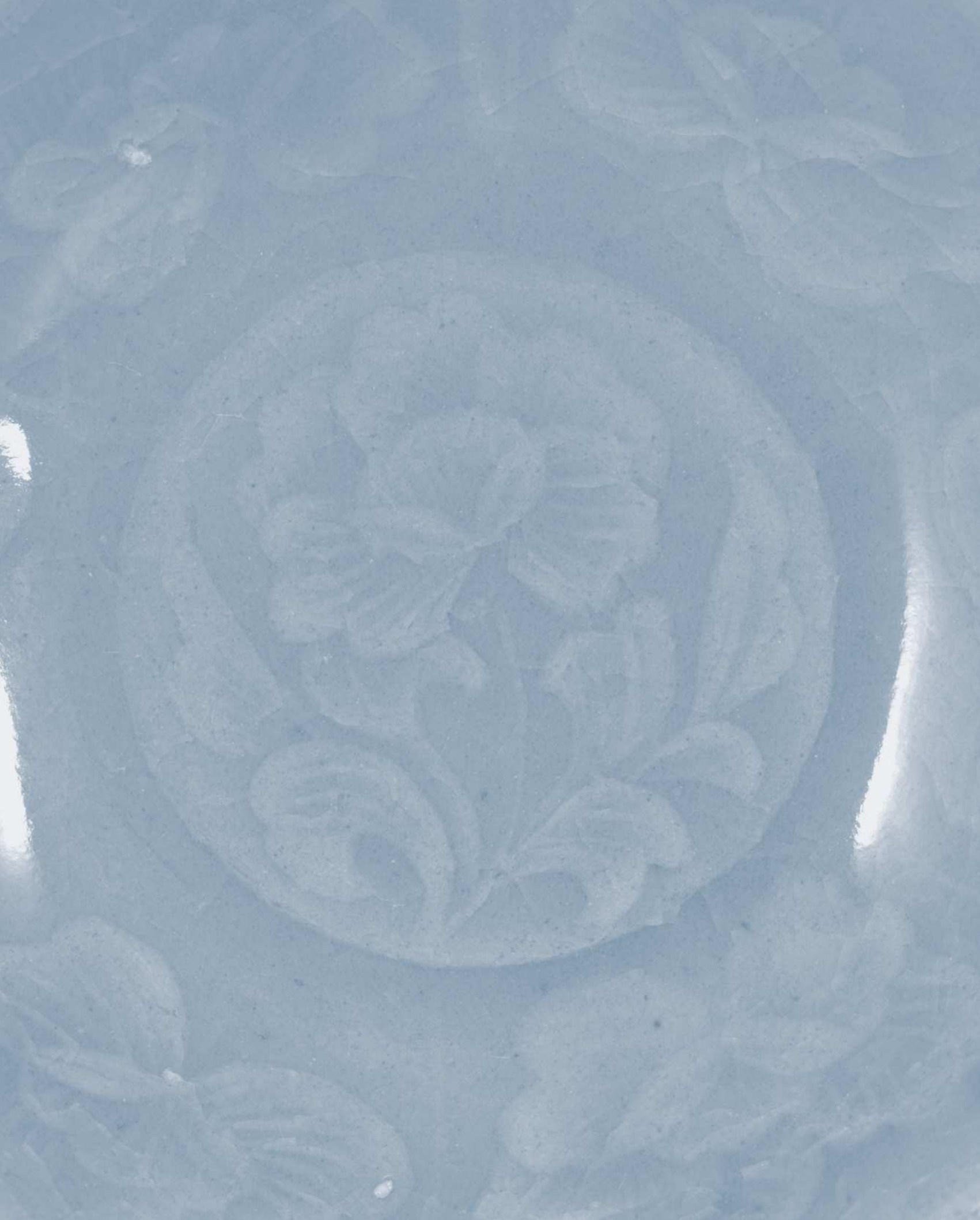
고려 12-13세기
 높이 34.5 입지름 5.8 굽지름 13.2
 국립중앙박물관 덕수434
 보물 제346호

몸통이 부드러운 'S'자 형태로 만들어진 청자 매병으로 고려 중기의 전형적인 매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바깥으로 벌어진 저부에서 살짝 줄어들어 올라가는 몸통은 풍만한 어깨로 이어지며, 수직으로 꺾이는 입술로 연결된다.

매병의 몸통 중앙에는 흑백상감기법으로 장식된 모란가지무늬가 있다. 좌우로 피어있는 모란꽃을 배치하고, 중앙으로 봉우리를 배치하여 문양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모란꽃잎은 백상감으로 면상감하였으며, 수술은 흑백상감기법으로 장식하여 정교함을 더했다. 꽃잎의 끝에는 붉은색의 동화안료를 칠해 꽃잎에 생동감을 주었다. 꽃잎의 주변에 있는 잎사귀와 꽃의 줄기와 꽃의 아래에 있는 잎사귀의 잎맥은 흑상감기법으로 표현하고, 꽃의 아래에 있는 잎사귀의 윤곽선은 백상감기법으로 묘사하여 같은 잎사귀일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어깨에는 크게 4개의 방향으로 펼쳐진 문양대를 여의두문양으로 만든 다음, 늘어뜨린 술 장식을 추가하였으며, 문양대 안에 국화꽃가지무늬를 장식하였다. 매병의 저부에는 흑상감기법으로 번개무늬 띠가 둘러져 있으며, 그 위로 간략화된 두 겹의 연판문이 이중으로 묘사되어 있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이 전면에 석위져 있으며, 입술과 어깨의 주변에는 유약이 묻쳐 있는 부분도 있다. 매병의 표면에는 가는 빙철(氷裂)이 퍼져 있다. 굽은 바깥면을 깎아 내지 않고 폭이 일정한 접지면(接地面)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모래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뉘 있어 세심하게 고운 모란 심으셨나
꺼일까 두려워 난간까지 들렀네
아름다운 글귀로 그 모상 그려내려
겹쳐진 꽃잎 자세히 헤치며 꽃수염 살피노라
일찍부터 화중왕花中王으로 대적할 이 적은지라
천자 눈에 혼자서만 뜨이길 바라다네
꽃다운 너의 생각 과연 부합되면
옥 같은 빛을 어느 때나 특별히 구경하시리

해를 거듭 길러낸 빛깔 짙은 모란화야
대견해라 한 길 넘어 난간에 가지런하네
화공 있어 그려내도 비슷도 않을 거니
나라에 제일가는 미인 불러 서로 겨뤄 볼거나
애교로 봐선 영롱한 말이라도 하겠더니
꽃가지 누웠어도 아리따운 자태 남아 있네
멀리서 풍류만 당겨도 마음 이미 취하는데
사랑함이 같은 이는 꼭 보지 않아도 좋으리

委曲誰裁繡萼丹
畏人攀折已施欄
欲將繪句彫章狀
細撥重葩複蕊看
早是花王元少敵
獨於天子要承顏
果能副爾芳心望
玉色時時許特觀

經年養得色深丹
可喜枝齊丈許欄
縱有畫工描未似
須呼國色較相看
嬌多似吐玲瓏語
眠重猶餘媚嫵顏
遙挹風流心已醉
情鍾如我不須觀

이규보李奎報,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第3卷 古律詩
次韻諸君所賦山呼亭牡丹 并序

007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화형 발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花形 鉢
 Celadon flower-shaped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8 입지름 19.3 굽지름 5.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18196, 충남 태안 대섬 출수

입지름이 넓고 입술의 가장자리를 여섯 개의 꽃잎처럼 살짝 도려낸 청자 발이다.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입술로 이어진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에는 내저원각 內底圓刻이 있으며, 입술의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발의 안쪽 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꽃넙쿨무늬가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고, 꽃잎과 잎사귀의 안쪽에는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잎맥을 표현하여 정교함을 더했다. 바깥쪽 면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녹청색綠青色의 유약을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웠으며, 표면 전체에 굵은 빙렬氷裂이 퍼져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며, 굽 접지면接地面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08 청자 음각 모란절지문 화형 접시
 靑瓷 陰刻 牡丹折枝文 花形 楩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incis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9 입지름 16.8 굽지름 4.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7174, 충남 태안 대섬 출수

높이가 낮고 입술의 가장자리를 여섯 개의 꽃잎처럼 살짝 도려낸 청자 접시이며, 가마 안에서 구워지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약간 일그러졌다. 몸통은 바닥면의 가장자리에서 한 번 꺾여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입술로 이어진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에는 넓고 편평하며, 입술의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접시의 안쪽 바닥면에는 음각기법으로 한 송이의 모란꽃가지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꽃잎과 잎사귀의 안쪽에는 빗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잎맥을 표현하여 정교함을 더했다. 바깥쪽 면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유약은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워져 있으나 산화되어 전체적으로 녹황색綠黃色을 띤다. 그릇의 표면 전체에 굵은 병렬水漉이 퍼져 있다. 굽은 낮은 다리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으며, 굽 접지면接地面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 세 개를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09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발우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7.1 입지름 20.0 굽지름 5.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8348, 충남 태안 대섬 출수

모란꽃무늬가 음각기법으로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는 청자 발우이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은 넓고 편평하며,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곧게 선 입술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반원(半圓)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발우의 안쪽 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꽃넝쿨무늬를 나타내었다. 안쪽 바닥면에는 음각선으로 원을 그리고 모란꽃무늬를 장식하였고, 안쪽 옆면에는 모란꽃 네 송이가 대칭되어 넝쿨무늬와 함께 빼곡하게 묘사하였다. 꽃잎과 잎사귀에는 가는 선을 넣어 정교함을 더했다. 바깥쪽 면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을 그릇의 전면에 씌웠으나 바깥쪽 면에는 유약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다. 굽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바닥면을 살짝 깎아낸 평굽의 형태로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 빚음 받침 네 개를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10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발우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5 입지름 17.9 굽지름 4.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인8347, 충남 태안 대섬 출수

모란꽃무늬가 음각기법으로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는 청자 발우이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은 넓고 편평하며,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곧게 선 입술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반원(半圓)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발우의 안쪽 면에는 음각기법으로 모란꽃 두 송이와 넝쿨무늬가 대칭되게 장식되어 있고, 꽃잎과 잎사귀에도 음각선을 넣어 섬세함을 더했다. 바깥쪽 면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을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입혀져 있다. 굽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바닥면을 살짝 깎아낸 평굽의 형태로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 빚음 받침 네 개를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11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발우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8 입지름 16.4 굽지름 4.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8346, 충남 태안 대섬 출수

모란꽃무늬가 음각기법으로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는 청자 발우이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은 넓고 편평하며,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곧게 선 입술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반원(半圓)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발우의 안쪽 면에는 음각기법으로 활짝 핀 모란꽃 두 종류가 서로 마주보며 대칭되게 장식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넝쿨무늬가 감싸고 있다. 꽃잎과 잎사귀 안에는 가는 음각선을 넣어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바깥쪽 면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을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웠다. 굽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바닥면을 살짝 깎아낸 평굽의 형태로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 빚음 받침 네 개를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12 청자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화형 발
 靑瓷 壓出陽刻 牡丹唐草文 花形 鉢
 Celadon flower-shaped bowl
 with press-embos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2 입지름 19.8 굽지름 5.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11865, 충남 태안 대섬 출수

입지름이 넓고 입술의 가장자리를 여섯 개의 꽃잎처럼 살짝 도려낸 청자 발이다.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곧게 선 입술로 이어진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에는 내저원각이 있으며, 입술의 아래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발의 안쪽 면에는 압출양각기법으로 모란꽃넝쿨무늬가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고, 꽃잎과 잎사귀의 안쪽에는 가는 선으로 잎맥을 표현하여 정교함을 더했다. 바깥쪽 면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다. 유약은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워져 있으나 산화酸化되어 전체적으로 녹황색綠黃色을 띤다. 표면 전체에 가는 빙렬氷裂이 퍼져 있다. 굽은 다리굽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굽 접지면接地面의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13 청자 압출양각 모란문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文 碟匙
 Celadon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0 입지름 10.1 굽지름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10799, 충남 태안 대섬 출수

모란꽃무늬가 가득하게 장식된 소형의 청자 접시이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은 편평하며,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바깥으로 꺾이는 입술로 이어진다.

접시의 안쪽 면에는 모란꽃무늬가 압출양각기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안쪽 바닥면에는 활짝 핀 모란꽃과 잎사귀가 빼곡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안쪽 옆면에는 여섯 개의 문양대로 구획하여 모란꽃과 잎사귀를 나타내었다. 바깥쪽 면에는 문양이 없다. 유약은 녹황색(綠黃色)을 띠며,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썩워져 있으나 바깥쪽 면에는 유약이 일부 묻쳐 있는 곳도 있다. 그릇의 표면 전체에는 굵은 빙철(氷裂)이 퍼져 있다. 굽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바닥면을 살짝 깎아낸 평굽의 형태로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 빛을 받침 세 개를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14 청자 압출양각 모란문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文 碟匙
 Celadon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1-2.3 입지름 9.3-9.6 굽지름 3.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7131, 충남 태안 대섬 출수

모란꽃무늬가 가득하게 장식된 소형의 청자 접시이며, 가마 안에서 구워지면서 전체적인 형태가 약간 일그러졌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은 편평하며,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바깥으로 꺾이는 입술로 이어진다.

접시의 안쪽 면에는 모란꽃무늬가 압출양각기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안쪽 바닥면에는 활짝 핀 모란꽃과 잎사귀가 가득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안쪽 옆면에는 여섯 개의 문양대로 구획하여 모란꽃무늬를 각각 나타내었다. 바깥쪽 면에는 문양이 없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을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바깥쪽 면에는 유약이 일부 묻쳐 있는 곳도 있다. 그릇의 표면 전체에는 굵은 빙철氷裂이 퍼져 있다. 굽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바닥면을 살짝 깎아낸 평굽의 형태로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 세 개를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15 청자 압출양각 모란문 화형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文 花形 楩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0 입지름 9.9 굽지름 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인5750, 충남 태안 대섬 출수

입술의 가장자리를 여섯 개의 꽃잎처럼 살짝 도려낸 소형의 청자 접시이다. 그릇의 안쪽 바닥면은 편평하며,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바깥으로 꺾이는 입술로 이어진다.

접시의 안쪽 면에는 압출양각기법으로 모란무늬가 빼곡하게 표현되어 있다. 안쪽 바닥면에는 활짝 핀 연꽃 두 송이가 대칭되게 장식되어 있으며, 안쪽 옆면에는 여섯 개의 문양대로 구획하여 모란과 잎사귀를 각각 나타내었다. 바깥쪽 면에는 문양이 없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녹청색綠靑色의 유약을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워져 있으며, 표면에는 빙렬氷裂이 퍼져 있다. 굽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바닥면을 살짝 깎아낸 평굽의 형태로 굽 안바닥에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白色의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 세 개를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있다.



016 청자 음각 모란문 매병
 靑磁 陰刻 牡丹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0.0 입지름 6.0 굽지름 15.0

동체부 전면에 모란꽃이 음각된 매병이다. 동체부에 비해 광구廣口형태의 구연이 작고, 어깨가 둥글게 벌어졌으며, 아래로 갈수록 좁아들다가 저부에서 약간 밖으로 벌어졌다. 초기의 매병 형태보다 어깨가 올라가고 저부의 곡선이 밖으로 벌어지면서 부드러운 S자형을 만들어냈다. 저부의 번개무늬 띠를 제외하고 동체부 전면에 모란꽃넙쿨을 시문하였다. 모란을 꽃봉오리인 것과 크고 작게 만개한 것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며, 꽃잎에 다시 가는 세선을 음각하고 줄기와 잎의 앞맥까지 가늘게 다시 음각하는 등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무늬가 시문된 매병은 강진 사당리 23호 가마터와 부안 유천리 청자가마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태토와 유약은 정선된 편이나 유약이 일부 산화되기도 하고 기포가 많아 약간 탁하기도 하다. 굽은 접지면接地面을 제외한 굽 안바닥을 깎아냈으며 접지면接地面의 유약을 닦아냈다



017 청자 철화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鐵畫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6.0 입지름 6.0 굽지름 9.2

국립광주박물관 원994, 전남 완도 어두리 출수

몸통의 전면에 모란꽃가지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청자 매병이다. 살짝 벌어진 저부에서 몸통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풍만한 어깨로 이어지며, 수직으로 꺾인 입술로 연결된다. 이러한 매병은 측면이 'S'자 형태로 꺾이는 전형적인 고려중기의 매병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형태이다.

매병의 바깥쪽 면에는 어깨, 몸통, 저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철화기법으로 무늬가 장식되었다. 매병의 몸통 중앙에는 활짝 핀 모란꽃과 풍성하게 구성된 잎사귀와 가지가 조합된 모란꽃가지 무늬를 세 곳에 화려하게 묘사하였다. 매병의 어깨에는 간략화 꽃무늬가 표현되어 있으며, 매병의 하단에는 철화안료를 바른 후, 세로로 물결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장식해 두었다. 유약은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워져 있으나 산화酸化되어 전체적으로 녹황색綠黃色을 띤다. 굽은 바깥면을 깎아 내지 않고 폭이 일정한 접지면接地面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빚음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018 청자 철화 모란절지문 주자

靑瓷 鐵畫 牡丹折枝文 注子

Celadon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1.2 입지름 8.6

국립중앙박물관 덕수2565

몸통의 전면에 모란가지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청자 주자로 뚜껑과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주자는 사선으로 올라가는 몸통은 둥그렇게 오르내리는 어깨로 이어지며, 그 위로 곧게 선 목과 바깥으로 벌어진 입술로 연결된다. 몸통의 위쪽으로 부드러운 'S'자형을 그리는 주구注口가 부착되어 있으며, 목의 위쪽과 몸통의 윗부분에는 띠 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뚜껑은 몸통이 둥그란 곡선을 이루며 수직으로 벌어지는 드림턱 아래로 곧게 선 입술로 이어진다. 뚜껑의 윗면에는 띠모양으로 등글게 만든 꼭지가 붙어 있는데, 유약이 입혀져 있지 않은 뚜껑의 안쪽면에 '丘'자가 묵서墨書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금속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자의 몸통에는 철화기법으로 활짝 핀 모란꽃과 양쪽으로 뻗어 있는 줄기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주구와 손잡이에는 잎사귀를 표현하였다. 목부분에는 두 겹의 철반점으로 꽃모양을 간략하게 장식하였으며, 뚜껑의 윗면에도 모란꽃의 잎사귀를 철화기법으로 표현하였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유약은 전면에 고르게 씌워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산화酸化되어 녹황색綠黃色을 띤다. 굽은 바깥면을 깎아 내지 않고 폭이 일정한 접지면接地面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019 청자 철화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鐵畫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7.0 입지름 5.7 바닥지름 7.4

국립중앙박물관 본관2008

몸통의 전면에 모란꽃가지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청자 매병이다. 살짝 벌어진 지부에서 몸통은 사선으로 올라가 풍만한 어깨로 이어지며, 수직으로 꺾인 입술로 연결된다. 이러한 매병은 측면이 'S'자 형태로 꺾이는 전형적인 고려중기의 매병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형태이다.

매병의 몸통에는 철화기법으로 활짝 핀 모란꽃과 풍성하게 구성된 잎사귀와 가지가 조합된 모란꽃가지무늬를 세 곳에 화려한 필치로 장식하였으며, 꽃과 잎사귀의 잎맥을 세선으로 한 번 더 표현하여 사실성을 더했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유약은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씌워져 있으나 산화酸化되어 전체적으로 녹황색綠黃色을 띤다. 굽은 바깥면을 깎아 내지 않고 폭이 일정한 접지면接地面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020 청자 양각 모란당초문 주자
 靑瓷 陽刻 牡丹唐草文 注子
 Celadon pitcher with carv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8
 국립중앙박물관 덕수4740

몸통의 전면에 모란꽃넙쿨무늬가 장식되어 있는 소형의 청자 주자로, 물이 나오는 주구注口의 일부가 결실되어 금으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였다. 주자의 몸통은 편평한 바닥에서 수직으로 올라가 어깨에서 동그랗게 오므라드는 반원형半圓形을 띠고 있으며, 위쪽에는 동그랗게 구멍을 두어 물을 넣을 수 있는 입수구入水口를 만들었다. 입술은 곧게 선 형태로 약간 도톰하게 마무리하였다. 몸통의 한쪽에는 바깥으로 벌어지는 주구가 몸통의 약간 위쪽으로 부착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운데 골이 나 있는 띠 형태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주자의 전면에는 활짝 핀 모란꽃과 넙쿨무늬를 양각기법으로 장식한 뒤, 윤곽선에 가는 음각선을 두르고, 꽃잎과 잎사귀의 잎맥을 세선으로 한 번 더 표현하여 정교함을 더하였다. 태토胎土는 잘 정제精製된 흙을 사용하였다. 유약釉藥은 담청색으로 그릇의 전면에 고르게 석운 뒤, 굽 접지면接地面과 굽 안바닥의 일부를 닦아내고 번조燻造하였다. 굽은 바깥면을 깎아 내지 않고 폭이 일정한 접지면接地面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내화토耐火土빚음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021 청자 양각 모란당초용문 과형 매병
 靑瓷 陽刻 牡丹唐草龍文 瓜形 梅瓶
 Celadon melon-shaped *maebyeong* with carved peony scroll
 and dragon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37.9 입지름 6.1
 국립중앙박물관 덕수4

몸통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덟 개의 선을 길게 음각하여 참외모양으로 만든 청자 매병이다. 저부에서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는 몸통은 공처럼 둥근 어깨로 이어지며, 수직으로 꺾인 입술로 연결된다. 이러한 매병은 측면이 'S'자 형태로 꺾이는 전형적인 고려중기의 매병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형태이다.

여덟 개로 나누어진 각각의 면에는 능화형菱花形의 문양대 안에 용무늬가 표현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모란꽃넙쿨무늬가 가득 채워져 장식되어 있다. 저부에는 간략화된 연판문蓮瓣文을 표현하여 장식미를 더하였다. 몸통과 굽 안바닥에는 매병을 구울 때 사용했던 갑발匣鉢의 일부가 붙어 있다. 태토胎土는 비교적 잘 정제된 흙을 사용하였다. 매병의 전면에 녹청색靑色의 유약을 고르게 석웠으며, 어깨와 입술 주변으로 유약이 다소 묻쳐 있다. 매병의 표면에는 작은 빙렬氷裂이 퍼져 있다. 굽은 바깥면을 깎아 내지 않고 폭이 일정한 접지면接地面만 남겨두고 굽 안바닥을 깎아 내었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빛을 받침을 받쳐 번조燻造한 흔적이 남아 있다.



022 청자 상감 모란문 유병
 靑瓷 象嵌 牡丹文 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4.6 입지름 3.0 굽지름 5.5

구연부口緣部가 동체부에 비해 작아서 상대적으로 동체부의 양감이 팽팽하게 느껴지며 굽은 약간 돌출된 정도로 낮다. 동체부 윗면 세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양식화된 모란꽃이 상감되어 있다. 유태가 정선되어 유약이 비색을 띠지만 유약 층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며 기포가 많아 약간 탁하다. 굽 안바닥 가장자리 세 곳에 규석받침 흔적이 있다.



023 청자 상감 모란문 발
 靑磁 象嵌 牡丹文 鉢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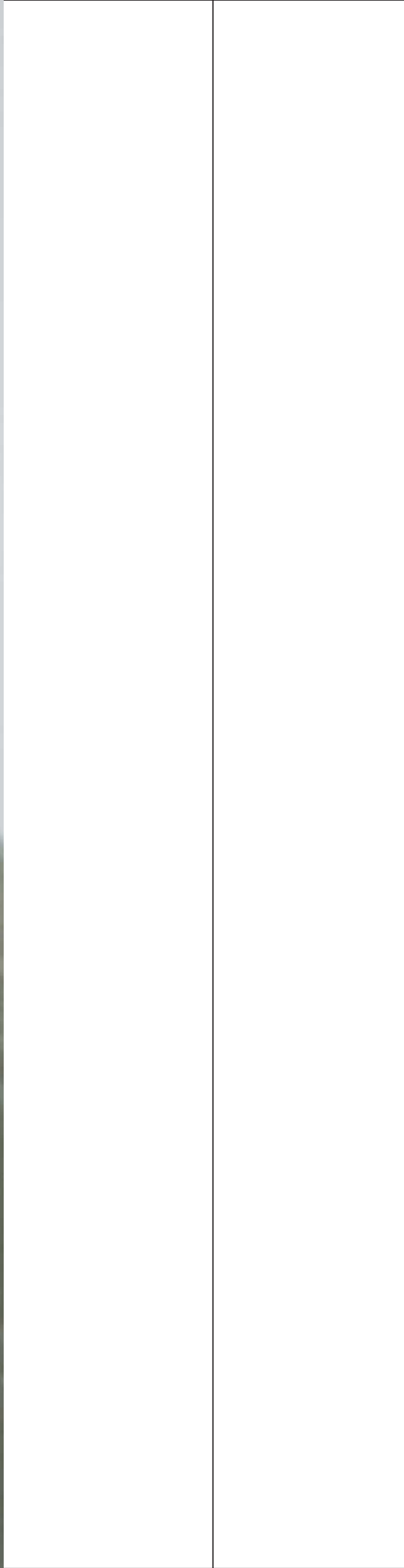
고려 13세기
 높이 5.6 입지름 19.2 굽지름 6.1

높이가 낮고 모든 무늬가 백상감으로만 되어 있는 대접이며, 굽 안바닥에 'O'기호가 찍혀 있어 강진 사당리 청자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넓은 입지름에 비해 굽지름이 약간 좁은 듯하고 굽은 낮고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내저면 역시 둥근 곡면으로 되어 있다. 중심에 두 줄로 된 원 안에 도안화된 꽃무늬가 있고, 기벽에는 네 개의 모란꽃가지가 대칭을 이루며 구연 아래에는 넝쿨무늬 띠를 상감하였다. 외면 기벽에도 네 개의 모란꽃가지만을 배치하였다. 모든 무늬가 뛰어난 솜씨로 가늘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태토와 유약이 잘 정선되었고, 성형 또한 단정하며 유약도 잘 녹아서 맑고 광택이 있다. 유면釉面이 일부 산화되어 갈색을 띠기도 한다. 접지면接地面까지 유약이 잘 입혀져 있고 굽 안바닥 세 곳에 규석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모란꽃이 몸체 전면에 상감된 정병이다. 정병은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에게 바치는 맑은 물을 담은 물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물병과는 달리 물을 담은 입수구入水口가 몸체 옆에 있고, 물을 따르는 출수구出水口는 가늘고 긴 형태로 병의 위쪽에 있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출수구를 따로 만들어 정병의 목 부분에서 접합하고 중간에 둥글고 넓은 환대環帶를 놓고 이어서 붙인 것이다. 원래 입수구에는 뚜껑이 있어서 고리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몸체 전면에는 활짝 핀 모란꽃가지를 자유롭게 배치한 듯 모란꽃의 위치가 획일적이지 않다. 자세히 보면 정병의 아랫부분 세 곳과 입수구 왼쪽의 모란은 꽃봉오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란을 상감하는 과정에서 남은 면적이 좁아지자 크기가 작은 꽃봉오리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 짐작되는데 장인의 재치가 엿보여 흥미롭다. 가늘고 긴 출수구는 팔각형으로 각이 져 있고 굽는 과정에서 약간 휘어졌다. 여덟 개 면을 모두 무늬로 채우지 않고 네 곳에만 교대로 닝쿨무늬를 상감하여 여백을 주었다. 출수구의 구연과 환대環帶의 가장자리에는 만리자를 상감하고, 환대의 둥근 윗면에도 모란꽃을 네 송이 상감하였다. 입수구의 위쪽에는 연판문을 상감하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래쪽에는 음각기법으로 넓은 연잎을 표현하였는데 가장자리를 두 겹으로 겹쳐진 모양으로 처리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정병의 목과 몸체 일부는 약간 산화되어 갈색을 띠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약이 잘 녹아 담록색淡綠色을 띤다. 바깥면 전체에 무늬가 있으나 대부분 백토상감으로 표현되어 화려해 보이지 않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굽 안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고, 접지면接地面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모래빛을 받침을 받쳐 구웠다.







도판목록

001

청자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화형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唐草文 花形 碟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3.5 입지름 17.3 굽지름 6.4
호림박물관 **교263**

002

청자 기와
靑瓷 瓦

Celadon roof tiles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길이 40.8
국립중앙박물관, 강진 사당리 출토

003

청자 음각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陰刻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cis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13세기
높이 35.4 입지름 7.0 바닥지름 15.2
국립중앙박물관 **본관1981**
보물 제342호

004

청자 상감 모란당초문 표형 주자
靑瓷 象嵌 牡丹唐草文 瓢形 注子

Celadon gourd-shaped pitcher with inlai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13세기
높이 34.3 입지름 2.0 굽지름 9.7
국립중앙박물관 **본관10075**
국보 제116호

005

청자 상감 모란문 호
靑瓷 象嵌 牡丹文 壺

Celadon Jar with inlai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13세기
높이 19.7 입지름 20.6
국립중앙박물관 **덕수6238**
국보 제98호

006

청자 상감동화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象嵌銅畫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laid
and underglaze copper-paint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13세기
높이 34.5 입지름 5.8 굽지름 13.2
국립중앙박물관 **덕수434**
보물 제346호

007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화형 발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花形 鉢

Celadon flower-shaped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8 입지름 19.3 굽지름 5.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18196**,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08

청자 음각 모란절지문 화형 접시
靑瓷 陰刻 牡丹折枝文 花形 碟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incis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9 입지름 16.8 굽지름 4.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7174**,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09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발우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7.1 입지름 20.0 굽지름 5.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8348**,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10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발우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5 입지름 17.9 굽지름 4.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8347**,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11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발우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鉢盂

Celadon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8 입지름 16.4 굽지름 4.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8346**,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12

청자 압출양각 모란당초문 화형 발
靑瓷 壓出陽刻 牡丹唐草文 花形 鉢

Celadon flower-shaped bowl
with press-emboss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6.2 입지름 19.8 굽지름 5.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11865**,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13

청자 압출양각 모란문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文 碟匙

Celadon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0 입지름 10.1 굽지름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10799**,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14

청자 압출양각 모란문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文 碟匙

Celadon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1-2.3 입지름 9.3-9.6 굽지름 3.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7131**,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15

청자 압출양각 모란문 화형 접시
靑瓷 壓出陽刻 牡丹文 花形 碟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press-embos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0 입지름 9.9 굽지름 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5750**, 충남 태안 대섬 출수

016

청자 음각 모란문 매병
靑磁 陰刻 牡丹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40.0 입지름 6.0 굽지름 15.0

017

청자 철화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鐵畫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6.0 입지름 6.0 굽지름 9.2
국립광주박물관 **원994**, 전남 완도 어두리 출수

018

청자 철화 모란절지문 주자
靑瓷 鐵畫 牡丹折枝文 注子

Celadon pitcher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1.2 입지름 8.6
국립중앙박물관 **덕수2565**

019

청자 철화 모란절지문 매병
靑瓷 鐵畫 牡丹折枝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underglaze iron-painted peony branch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27.0 입지름 5.7 바닥지름 7.4
국립중앙박물관 **본관2008**

020

청자 양각 모란당초문 주자
靑瓷 陽刻 牡丹唐草文 注子

Celadon pitcher with carved peony scroll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5.8
국립중앙박물관 **덕수4740**

021

청자 양각 모란당초용문 과형 매병
靑瓷 陽刻 牡丹唐草龍文 瓜形 梅瓶

Celadon melon-shaped *maebyeong* with carved peony scroll
and dragon design

고려 12세기
높이 37.9 입지름 6.1
국립중앙박물관 **덕수4**

022

청자 상감 모란문 유병
靑瓷 象嵌 牡丹文 油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4.6 입지름 3.0 굽지름 5.5

023

청자 상감 모란문 발
靑磁 象嵌 牡丹文 鉢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높이 5.6 입지름 19.2 굽지름 6.1

024

청자 상감 모란문 정병
靑瓷 象嵌 牡丹文 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13세기
높이 41.5 굽지름 9.4

고려청자박물관
학술총서 18

모란 牡丹

천 년의
향기를 담은
청자

—
PEONY

CELADON,
ABOUT A SCENT OF
A THOUSAND YEARS

총괄
고려청자박물관

기획
정성목 고려청자박물관장

진행
김대근 조은정 정신일 고려청자박물관

사진
김광섭 K-art studio

북디자인
송인혜 짝누리 그래픽네트

제작
그래픽네트

인쇄
우일인쇄공사

발행
고려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Tel. 061-430-3752

ISBN 978-89-960064-8-0 93630

©2015 고려청자박물관
이 책의 수록된 사진자료의 사용권한은 고려청자박물관에 있습니다.